

2025년 1월 14일

고려아연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네 번째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 건강과 행복,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한에서는 왜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고려아연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영풍의 이해관계가 고려아연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상충된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영풍의 암울한 전망: 석포제련소의 문제점과 그 의미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단일 규모로 세계 4위 대규모 제련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아연제련소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시설인 황산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도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자체 처리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미룬 채 계속해서 고려아연의 황산 시설에 의존해오던 상황은 결국 관계당국의 규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려아연이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의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규제 조치로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에게 당국의 규제조치 내역을 알리고, 2025년 1월 11일부터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처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연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 차질

실제로 영풍은 현재 심각한 운영 차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다음달 말인 2025년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 중단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약 70일간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지만, 제련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에 영풍은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풍이 자체 황산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로 황산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영풍은 이러한 황산 시설을 건설하는 데 7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영풍은 동해항에 위치한 황산 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5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석포제련소가 정상 가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려아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풍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반대로 고려아연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은 물류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역시 영풍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추가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감산은 아연 가격과 제련 수수료(TC)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영풍과 고려아연은 그 이해관계가 진정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최근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풍의 이익이 고려아연과 그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영풍: 공동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영풍의 허위 주장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밸류업 방안”을 통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가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체하면 고려아연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주주 가치도 하락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영풍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과 역량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 구매:** 영풍은 자사의 연간 60만 톤에 달하는 아연정광 구매가 공동 구매 계약에서 제외될 경우 고려아연은 원료 구매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연만 생산하는 영풍과 달리, 고려아연은 다양한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비철금속 제련기업입니다. 매년 호주 자회사인 SMC 를 포함해 전 세계 공급처로부터 약 200만 톤의 정광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조달 방식은 영풍과의 공동 구매 없이도 충분한 협상력을 통해 원료를 경쟁력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 **공동 판매:** 영풍은 공동 판매를 중단하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 해외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영풍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고려아연과 동일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외 고객들은 일관되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 공급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고려아연을 선호합니다. 오히려 영풍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 고려아연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동 중단 등 운영이 불안정한 영풍과 함께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려아연에 이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치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나아가, 공동구매를 종료할 경우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에게 일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효율적인 공동 구매 계약으로 저야 하는 이행부담과 양질의 정광 원료를 영풍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함에 따른 고려아연의 기회이익 상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풍이 미디어 등을 통해 그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시설 또는 기술 등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고려아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침글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2025 년 아연 산업은 중국과 유럽 제련소 간의 “치킨 게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의 제련 수수료를 기록하는 등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 고려아연을 비롯한 모든 아연 제련소의 경쟁력을 시험대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도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회가 따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고려아연과 현 경영진은 오로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장기적 성장과 경영 효율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주주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려아연주식회사
회장 최윤범

